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항목은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Analyst 장치영 chiyong.jang@hanafn.com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9월 21일 | Global Asset Research

ETF Unboxing

M7 2.0: The New Big Tech, 'MANGOS'

AI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빅테크

미국 주식시장을 대표해 온 빅테크의 지형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 주가 수익률 측면에서 높은 동조성을 보였던 M7 구성종목 간 상관관계가 최근 빠르게 낮아졌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 중 하나로 빅테크 기업 간 AI 전략의 차별화를 꼽을 수 있다.

Apple은 대규모 AI 인프라 확장 경쟁에 직접 뛰어들기보다 디바이스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외부 AI 모델 기업과의 협력을 병행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반면 Amazon과 Microsoft는 AI 모델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와 클라우드 인프라의 결합을 통해 AI 생태계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주요 빅테크의 AI 전략 차별화는 미국 증시의 시가총액 순위 변화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AI 인프라 투자 확대의 수혜를 받고 있는 Nvidia가 시가총액 1위에 올라선 가운데, 자체 AI 모델과 클라우드 인프라 경쟁력을 보유한 Google은 올해 한때 Apple을 제치고 시가총액 2위에 올라섰다. AI 연산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확대되면서 Micron의 시가총액 순위 역시 지난해 말 27위에서 현재 10위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상장을 준비중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기업인 Anthropic과 OpenAI의 기업가치도 M7과 비교 가능한 수준까지 확대됐다. 여기에 AI 데이터센터와 위성통신 인프라를 보유한 SpaceX까지 더해지면서 AI 시대의 핵심 기업군은 기존 M7의 범위를 넘어 확장되는 모습이다.

러한 변화를 반영해 최근 시장에서는 Meta, Anthropic, Nvidia, Google, OpenAI, SpaceX를 묶은 새로운 빅테크 그룹 'MANGOS'가 등장했으며, 이들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ETF 상품이 출시 준비 중이다. 현재 Yorkville의 FRUT가 상장되어 거래 중인 가운데, Defiance, Corgi, ProShares 등도 일반형 및 레버리지·인버스 MANGOS ETF의 출시를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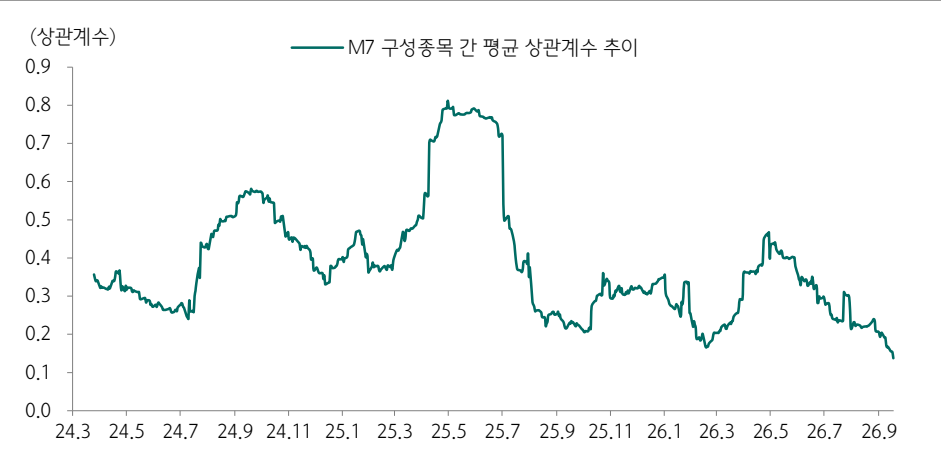
Yorkville America MANGOS Plus Index ETF(FRUT)

MANGOS로 분류되는 6개 AI 핵심 기업과 AI 인프라 기업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패시브 ETF이다. Meta, Anthropic, Nvidia, Google(Alphabet), OpenAI, SpaceX 등 MANGOS 기업군에 핵심적으로 투자하는 동시에 반도체, 데이터센터, 메모리, 네트워크 등 AI 인프라 기업까지 함께 투자하는 형태이다.

MANGOS 기업군에는 67% 비중을 배분하며, 해당 비중 내에서는 동일 가중 방식으로 편입 비중을 결정한다. 비상장 기업인 Anthropic과 OpenAI에 대해서는 Total Return Swap(TRS)을 활용해 익스포저를 확보하며 각각 최대 5% 편입 한도가 적용된다. Anthropic과 OpenAI가 상장할 경우, 편입 제한이 해제되고 지수 방법론에 따라 비중이 재조정된다. 나머지 33%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반도체 및 데이터센터 관련 기업 가운데 최근 6개월 및 12개월 총수익률을 기준으로 상위 7개 종목을 선정해 구성한다.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진행되며, 해당 시점에 구성종목을 재선정한다. 그 외 월에는 구성종목의 변경 없이 편입 비중을 조정한다.

도표 1. M7 구성종목 간 주가 동조화 현상 약화



주: M7 구성 종목의 일간 수익률 기준 60거래일 상관계수를 7개 종목 간 가능한 모든 조합에 대해 산출 후 평균 산출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I 메모리 수요 확대에 힘입어
Micron의 시가총액 순위 급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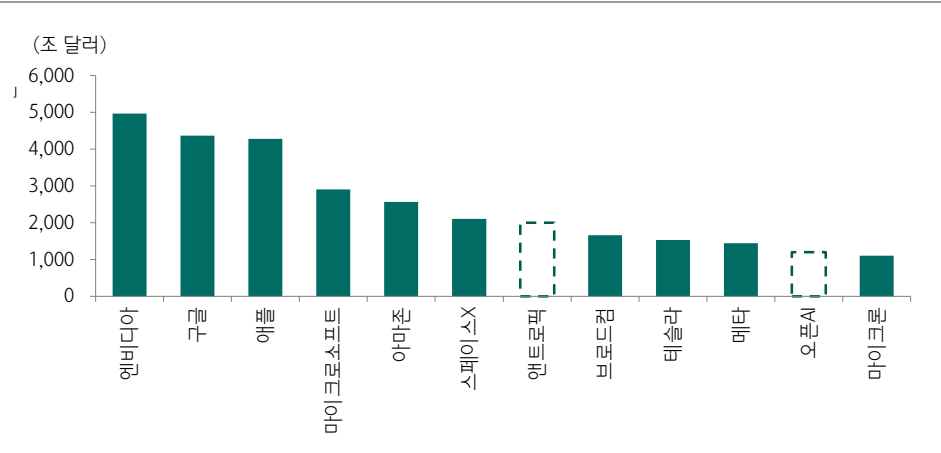
도표 2. 미국 시가총액 상위 기업 순위 변화 중

기업명	2024.12.31	2025.12.31	2026.03.31	2026.06.30	현재
엔비디아	2	1	1	1	1
애플	1	2	2	3	2
알파벳	4	3	3	2	3
마이크로소프트	3	4	4	4	4
아마존	5	5	5	5	5
스페이스X	-	-	-	6	6
메타	6	6	7	9	7
브로드컴	8	7	6	7	8
테슬라	7	8	8	8	9
마이크론	97	27	22	10	10

주: 초록색 음영은 순위 상승, 붉은색 음영은 순위 하락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thropic과 OpenAI의
최근 기업가치는
미국 상장기업 기준
각각 7위와 10위에 해당

도표 3. 빅테크 수준으로 성장한 Anthropic과 OpenAI의 기업가치



주: 2026년 9월 17일 기준. 상장기업은 시가총액, Anthropic은 상장 목표 기업가치, OpenAI는 최근 투자라운드 기업가치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도표 4. AI 빅테크 ETF

Yorkville America MANGOS Plus Index ETF							
종목코드	상장일	AUM (백만 달러)	보수	운용방식	수익률(%)		
					1W	1M	YTD
FRUT	2026.08.31	2.16	0.50	패시브	-	-	7.03
투자포인트	기존 M7을 넘어 AI 시대의 핵심 기업으로 부상한 차세대 빅테크 ‘MANGOS’에 집중 투자						
종목 선정 및 비중 결정	MANGOS 기업군 67%, AI 인프라 기업군 33% 배분. MANGOS는 동일가중을 기본으로 하되 Anthropic과 OpenAI는 각각 최대 5%로 제한. AI 인프라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팹리스 반도체, 파운드리 및 데이터센터 솔루션 관련 기업 가운데 최근 6개월 및 12개월 총수익률 기준 상위 7개 기업 선정						
정기변경	정기 리밸런싱은 매년 4회(3월, 6월, 9월, 12월) 진행되며, 해당 시점에 구성종목을 재선정. 그 외 월에는 구성종목의 변경 없이 편입 비중을 조정						
구성 종목	13종목 Alphabet 17.0, SpaceX 16.7, Meta 16.4, Nvidia 16.0, AMD 4.9, Dell 4.8, Marvell 4.7, Intel 4.6, SanDisk 4.6, Micron 4.5, Seagate 4.4, Anthropic 0.9, OpenAI 0.8						

주: 2026년 9월 18일 기준
자료: Factset,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중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